

# ‘월드컵 사활’ 신태용, 38세 이동국 선택

9~10차전 최종예선 26명 발표  
2년 10개월만에 대표팀 호출  
‘부상’ 손흥민·기성용도 합류

**신태용호 1기 대표팀 명단**  
2018 러시아 월드컵 최종예선 9~10차전, 우즈베크전

**FW**  
이동국(전북), 황희찬(제주), 김신욱(전북)

**MF**  
정우영(충청리판), 장현수(FC도쿄), 기성용(스완지시티), 권경원(대전), 손흥민(토트넘), 염기훈(수원), 이재성(전북), 김보경(기아), 남태희(알두하일SC), 구자철(아우크스부르크), 이근호(강원), 권창훈(다움)

**DF**  
김기혁(상하이 선화), 김주영(하에이 화샤), 김영권(광주 에버그린), 김민재(전북), 김민우(수원), 고요한(서울), 최철순(전북), 김진수(전북)

**GK**  
김진현(세레소 오사카), 김승규(빛세 그해), 조현우(대구)



9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의 사활이 걸린 월드컵 최종예선 9~10차전을 앞두고 신태용 축구 대표팀 감독이 '라이언킹' 이동국(38·오른쪽)을 2년 10개월 만에 대표팀에 호출했다. 사진은 2014년 10월 충남 천안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축구 국가대표팀 평가전 대한민국과 파라과이의 경기에서 뛰는 모습. /연합뉴스

9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의 사활이 걸린 월드컵 최종예선 9~10차전을 앞두고 신태용(47) 축구 대표팀 감독이 '라이언킹' 이동국(38)을 2년 10개월 만에 대표팀에 호출했다.

또 팔 부상에서 회복한 '핵심 공격수' 손흥민(토트넘)과 무릎 부상으로 재활하고 있는 대표팀의 '캡틴' 기성용(스완지시티)도 대표팀에 합류한 가운데 이번 시즌 유럽 무대 개막과 함께 뜨거운 발판을 자랑하는 '신(申)의 아이들'의 선봉 황희찬(잘츠부르크)도 '1기 신태용호'에 승선했다.

신태용 감독은 14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오는 31일 오후 9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이란과 2018 러시아 월드컵 최종예선전을 준비할 태극전사 26명을 낙점했다.

로 내달 5일 자정 우즈베크스탄 타슈켄트의 분요코르 스타디움에서 치러지는 우즈베크스탄과 월드컵 최종예선 10차전에 나설 26명의 태극전사를 확정했다.

대표팀 엔트리는 애초 23명이지만 신 감독은 조기소집으로 훈련시간을 충분히 확보한 만큼 26명의 선수로 훈련을 치러 정예멤버를 꾸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표팀은 오는 21일 파주 NFC(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서 조기 소집돼 이란전 및 우즈베크전 승리를 위한 답습훈련에 나선다.

신 감독은 한 달 동안 이어진 '태극전사 후보군' 집중 점검을 마치고 두 차례 남은 월드컵 최종예선전을 준비할 태극전사 26명을 낙점했다.

가장 눈에 띄는 선수는 이동국이다. 이동국이 마지막으로 태극마크를 달았던 것은 2014년 10월 14일 코스타리카와 평가전이 마지막으로 2년 10개월 만에 대표팀 유니폼을 입게 됐다.

K리그 역대 최다골 보유자(196골)인 이동국은 38살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K리그에서 꾸준한 활약을 펼치고 있다. 이번 시즌에도 18경기에서 4골 2도움을 따냈다. 황희찬(21)도 주목받는 공격수다.

황희찬은 2017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막내 공격수'로 신 감독이 이끌었던 올림픽 대표팀에 합류해 한국의 8강 진출의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에는 슈틸리케 전 감독의 선택을 받아 처음으로 A 대표팀에 소집돼 그해 9월 중국을 상대로

A매치 데뷔골까지 터트렸다.

그는 이번 시즌 오스트리아 본데스리가 개막과 함께 농익은 득점 감각을 선보이며 5골을 몰아쳐 일찌감치 '신(申)의 황태자' 후보로 손꼽혔다.

황희찬과 이동국과 함께 신 감독은 196cm의 장신 스트라이커 김신욱(전북)도 공격진에 포함했다.

중원에는 '원발의 달인' 염기훈(수원)과 더불어 중국 슈퍼리그에서 활약하는 권경원(대전)을 처음으로 대표팀에 뽑았다.

수비라인에는 '제2의 홍명보'라는 김민재(전북)도 21살의 나이로 처음 대표팀에 발탁되는 영광을 맞았다. /연합뉴스

## 광주 FC 남기일 감독 자진사퇴

11위 인천과 4점차 최하위 "강등 막기 위해 변화 필요"

경기 종료 후 45분, 대구 FC의 주니오가 광주 FC의 골키퍼 윤보상의 앞에 섰다.

페널티킥 상황에서 윤보상이 왼쪽으로 몸을 날려 공을 막아냈지만, 흘러나온 공이 주니오 앞으로 향했다. 주니오가 다시 공을 잡은 뒤 슈팅을 날렸고, 광주의 골망이 출렁였다.

아쉬움에 발을 굴리던 윤보상이 대구 진영까지 올라가서 마지막 공격에 나섰지만 이내 주심의 휘슬이 울렸고 광주의 0-1패가 기록됐다.

지난 13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최하위 광주와 10위 대구의 경기. 이 경기로 광주 남기일 감독이 지휘한 마지막 경기였다.



이 경기 후 진행된 공식 인터뷰에서 "구단과 선수단이 같이 미팅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던 남 감독은 14일 부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했다.

지난 2013년 8월 감독 대행으로 고향팀 지휘봉을 처음 잡았던 남 감독은 '공격 축구'로 다윗의 힘을 보여주던 골리앗 팀들을 위협했다. 극적인 승격을 연이어하면서 K리그 역사에 남을 겨울 이야기를 만들었고, 정식 감독으로 부임한 2015~2016 두 시즌 동안 특유의 압박 축구로 2년 연속 K리그 클래식 잔류를 이뤄내기도 했다. 지난 시즌에는 창단 최다승(11승), 최고 순위(8위) 기록도 남겼다. 지난 5년간 광주를 이끌며 기록한 성적은 50승 46무 61패.

하지만 올 시즌 광주는 4승 7무 14패(승점 19점)에 그치고 있다. 지난 14라운드 이후 강등권에서 머물렀던 광주는 대구전 패배로 11위 인천과도 4점 차로 벌어졌다.

남 감독은 "잔류를 위해 선수들과 끊임없이 미팅하고 모든 걸 쏟아냈지만, 결과를 만들어 내지 못했다. 경기를 운영할수록 한계를 느꼈고, 강등을 막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했다"며 "선수들

도 믿고 최선을 다해줬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내 책임이다. 선수들에게 아이디어를 제시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팀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사퇴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내 탓'을 말한 남 감독은 광주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한 마음도 밝혔다.

남 감독은 "광주는 나의 분신 같은 팀이다. 고향팀에서 나도 감독으로서 성장했고 많은 걸 이뤘다. 어려운 선택을 한 만큼 남은 경기에서 꼭 잔류할 수 있도록 기원하겠다"며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서 선수들에게 미안하다. 또 구단 팬들에게도 죄송하다"고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남 감독은 이날 직접 팬들에게 손편지를 써 "함께 힘들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주는 팬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든든했고, 큰 힘이 됐습니다"며 "광주는 강합니다. 자력이 있습니다. 경기장에 더욱 많이 찾아주시고 응원해주신다면 광주는 더욱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제가 물러남으로 광주가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메시 봤나?



13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캄프누에서 열린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의 2017 수페르코파 데 에스파냐 1차전에서 후반 35분 결승골을 터뜨린 레알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자신의 유니폼 상의를 들어보이고 있다. 이날 후반 13분 카림 벤제마와 교체 투입된 호날두가 골을 넣었지만 상의를 벗는 과한 세리머니와 헐리우드 액션으로 경고가 누적돼 후반 37분 퇴장 당했다. /연합뉴스

### 호날두, 바르샤 원정경기서 결승골 넣고 상의 벗어 4월 '메시 세리머니' 복수

스페인 프로축구 레알 마드리드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14일(한국시간) FC바르셀로나와 '엘클라시코'에서 특별한 세리머니를 펼쳤다.

호날두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캄프누에서 열린 2017 수페르코파 데 에스파냐 1차전 바르셀로나와 원정경기에서 1-1로 맞선 후반 35분 결승골을 넣은 뒤 상의의 유니폼을 벗었다. 그는 관중석을 향해 자신의 등번호와 이름이 적힌 유니폼을 들어 보였다.

상체 노출을 한 호날두는 주심에게 yellow 카드를 받았고 불과 2분 뒤 헐리우드 액션으로 경고를 한 번 더 받아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했다.

호날두는 경고 조치를 받을 것을 알면서도 왜 유니폼을 벗는 세리머니를 한 것일까? 호날두의 세리머니는 라이벌인 리오넬 메시를 겨냥한 '복수' 성격이 짙다.

메시는 지난 4월 24일 스페인 마드리드 에스타디오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열린 레알 마드리드와 원정경기에서 2-2로 맞선 후반 추가시간 극적인 결승골을 넣은 뒤 유니폼을 벗어 레알 마드리드의 홈팬들에게 보여줬다.

레알 마드리드 관중들은 메시지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지만, 메시는 아랑곳 하지 않고 수 초 동안 유니폼을 보여줬다. 메시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내가 바로 메시다'라고 외치는 것 같았다.

호날두는 안방에서 메시의 '도발'을 지켜보아야 했다.

호날두에게도 이 세리머니는 꽤 충격적이었던 모양이다. 그는 4개월이 지난 뒤 이 세리머니를 잊지 않고 적전에서 고스란히 돌려줬다. /연합뉴스



영국 런던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13일(현지시간) 2017 런던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일정이 모두 끝난 뒤 열린 '육상 단거리 황제' 우사인 볼트(가운데)의 은퇴식에서 볼트가 '런던올림픽 스타디움 조각'이 담긴 액자를 선물로 받았다. /연합뉴스

## 굿바이! 볼트

### 국제육상연맹, 깜짝 은퇴식

우사인 볼트(31·자메이카)가 출발선으로 걸어가더니, 무릎을 꿇었다.

그가 가장 긴장했던 장소다. '육상 단거리 신화'가 시작된 장소이기도 하다. 볼트는 '출발선'에서 마지막 인사를 했다.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은 14일(한국시간) 2017 런던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일정이 모두 끝난 뒤 '볼트를 위한 은퇴식'을 열었다.

볼트는 이번 대회에서 남자 100m 3위에 그쳤고, 400m 계주에서는 마지막 주자로 나섰지만 허벅지 부상으로 레이스를 마치지 못했다. IAAF는 팬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눌 기회가 없었던 볼트를 트랙 위로 불러냈다. 볼트도 행사 당일 에어 IAAF가 은퇴식을 준비했다는 걸 알았다.

볼트는 "상상도 못한 일이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서베스천 코 IAAF 회장과 사디크 칸

런던 시장은 '런던올림픽 스타디움 조각'을 때어 액자에 담았다. 그리고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볼트가 뛰던 레인인 '7'을 새겨 선물했다.

런던 세계선수권에서는 악몽의 트랙이었지만,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는 볼트가 금빛 질주를 한 트랙이었다.

볼트는 트랙 위를 돌다가 관중석 근처로 달려가 팬들에게 사진 찍을 기회를 주고, 자신의 100m와 200m 세계기록(100m 9초58, 200m 19초19)을 새긴 전광판 앞에서 특유의 번개 세리머니를 펼쳤다.

볼트는 트랙 위로 내려온 어머니와 아버지를 발견한 뒤에는 감격에 젖은 표정을 짓기도 했다.

볼트는 "이번 런던 대회를 치르면서 심정적으로 매우 힘들었다. 하지만 나는 늘 최선을 다했다. 최선을 다해 팬들께 기쁨을 주고자 했다"며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었다. 모두를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